

금강산 개방 1주년과 남북 경험 전망

황익각 / 고려대학교 교수 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머리말

보라! 분열과 갈등의 20세기는 사라져가고 이제 새천년 새아침의 여명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 한라산에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거쳐 백두산에 이르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화해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반세기는 우리의 것이 아닌 사상의 갈등때문에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형과 아우가 나누어 서고,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 관계 속에서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던 세월이었다. 반만년 한핏줄 한겨레로 이어오던 끈끈한 유대 관계가 깨어지고, 일제 36년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동지들이 서로 등을 지고 헤어져 못만난 지 반세기가 지나가 버렸다. 그 목메인 세월 속의 아쉬움이 이제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감격한 마음을 싣고 만물상 골안과 천선대 절벽을 타고 새 천년을 향해 메아리치고 있다. 이 메아리가 어떤 음률로 그려지고 다듬어질 것인가는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의 열린 가슴 방향에 달려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잊어버렸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끊어진 관계를 한겨레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놓기 위해 노력을 다시 하다보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분명 한반도 한민족의 세기가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환경과 질서는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족도 남과 북 다같이 과거의 고착된 생각의 틀을 훌훌 벗어 던지고 형과 아우, 누이와 동생 모두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 역사를 꾸려야 한다. 그 시작을 누가 먼저 제안하건,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접근하든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또 누구의 공으로 올려세울 것도 없다. 만약 상대방에 거부감을 준다면 함축적으로 불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어떤 정책이나 구호든지간에 삼가하고, 남북한 국민 정서가 공유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당국이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와 객체로서 참여할 때마다 장단기 민족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에 둘 때 가능하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내부 거래에 있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중요 분야의 개발과 협력을 적극 모색할 때 얻어진다.

예컨대,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민족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하지 않는 한, 남한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남북한 공동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금강산-설악산, 백두산-금강산-설악산-한라산 등을 연계하는 남북 관광 자원의 공동 개발은 남북간에 상호 이익 증진과 화해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개발 상품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도 이제 그 출발이긴 하지만, 새로운 세기와 더불어 점차 확대될 전망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지난 9월에 베를린에서 타결된 북미미사일회담의 합의는 한반도의 해결 구도를 대결과 갈등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도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조짐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9월 15일자 페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대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9월 25일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유엔 연설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유보할 뜻을 재확인함으로써, 북미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전망이다. 북미 관계의 구도는 우선 양측이 3개월 내에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그 다음 단계로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접근은 북미 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선시킬 변화를 예고해준다. 물론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미국 정부로서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앞에 가로 놓여 있지만, 아무튼 북미 관계의 상황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를 비롯한 기타 주변국들과 북한과의 질적 관계에도 큰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와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관계도 재조정되고 적절한 긍정적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페리보고서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대결과 긴장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포괄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남한 당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화해 정책이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남북한 당국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상호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적극적 관계로 진전시켜야 한다. 특히, 지

금까지 경험했듯이 상호 태도와 입장 대응이 남북 관계 변화의 폭과 속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점을 거울삼아, 남북한은 서로 발언을 신중하게 하면서 상호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신뢰를 쌓아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체제는 전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점차 개선되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큰 물결 속에서 남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추구한다면 남북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통일의 시대는 더욱 빠르게 올 수도 있다. 남북한은 우선 관광 사업의 확대와 같은 상호 실익을 가져다주는 공동 사업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일부터 하면서 '선택의 폭'을 열어두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1주년의 감격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가슴 설레이게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들이었다. 1999년 11월 18일은 금강산이 남한 사람들에게 개방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 누구나 그리워하는 금강산, 그 명산을 시인 이은상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금강산이 무엇이뇨 돌이요 물이로다
 돌이요 물일러니 안개요 구름이라
 안개요 구름이어나 있고 없고 하더라
 금강이 어드메뇨 동해의 가이로다.
 갈제는 거길러니 올제는 흥중에 있네
 라라라 이대로 지켜 함께 늙자 하노라

— 金剛歸路, 1930 —

북한 당국이 이 천혜 자원의 보고인 금강산을 한 세기가 바뀌는 현 시점까지 오염되지 않게 잘 보존해온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남북한 화해와 경제 협력 교류의 차원에서 현대측과 합의 하에 제한적이거나 개방하기로 한 것은 마음을 크게 연 정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10월 이후 1999년 9월 말까지 금강산 유람선의 항해 회수는 186 회에 총 11만 6,408 명이 관광을 했고, 금년 10월 하순부터는 외국 관광객도 금강산의 비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측은 삼일포 지역,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 8 개 지구를 대상으로 새천년 첫 해 말까지 부두, 휴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주유소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골프장 2 개, 스키장 1 개, 호텔 2 개, 콘도 2 개, 해수욕장 2 개소, 200실 규모의 해상 호텔의 건설에 총 3억 9,713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북한과 협

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금강산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가까이 다가와 만남과 협력의 장소로 우뚝 자리잡고 있다. 열려진 남북한간의 교류의 문은 더욱 넓게 열려져야 한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연계되어 북과 남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찾게 되고, 묘향산과 백두산, 지리산과 한라산이 7,000만 국민 모두가 아끼며 즐겨 찾는 곳이어서 되는 날이 곧 오리라. 그리하여 우리 민족 누구나 남과 북의 산 위에 올라서서 푸른 하늘 금수강산을 호흡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묻어두었던 한과 아쉬움 그리고 맺힌 감정들을 훌훌 떨쳐버릴 날이 어서 오리라.

남북 경협의 현황과 전망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들은 1992년 2월 19일부터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서 제3장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이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은 여러 국내외 관계 발전에 따라 '고(go)-스

톱(stop)'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대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어왔다. 남북한 교역 규모만 보아도 1990년에 1,347만 달러 규모이던 것이 최고조에 도달했던 1997년에는 3억 834만 달러로 괄목할 만큼 증대했고, 1999년에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미 약 2억 달러 규모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 확대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관심은 대규모 외화 획득이 가능하게 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기로 종래 위탁 가공 교역 등 소규모 경협 사업으로부터 보다 대규모 직접 교류 협력 차원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조짐이 커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로 1999년 9월 말까지 북한에 1억 8,200만 달러를 이미 지급했고, 앞으로 2005년까지 6년 3개월간 7억 6,000만 달러를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있다. 현대측과 북한과의 경협은 기타 남북한간의 다양한 경협 확대로 이어질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제 교류와 협력은 거래 당사자간에 가시적이든 잠정적이든 어떤 이익이 생길 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경제 교류란 어디든지 수요가 있는 곳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진전이다. 때로는 소득이나 기타 여건으로 수요를 적기에 조달 불가능할 때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공급자가 협력 차원에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무상으로 제공해줄 수도 있다. 그와 같은 관계의 형성은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이나 교류도 이러한 신뢰 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상호 이해하고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맺음말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자 머리 속에 주입시켜놓은 사상의 울타리와 서로를 적대 관계로 보는 고집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쉽게 진전될 수도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 가족의 아픈 마음을 사상이나 교조주의적 이념이 달래줄 수 있을까? 2차대전 후에 동서를 갈라놓았던 이념과 사상의 장벽들은 1990년을 분수령으로 이미 세계 도처에서 무너져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우리가 갈라선 이유가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사상의 갈등때문인가, 아니면 남북을 통치하고 있는 소수 지도층의 이해 상충때문인가,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와 냉전 구도의 유산때문인가?

한 세기가 지나가고 새천년이 밝아오고 있다. 전중과 전후에 걸쳐 살아온 한 세대도 백발이 되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이제 새로

운 세대가 한반도의 주역들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세대의 등을 향해 조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던지면, '역사의 아이러니' 였다는 말밖에는 적당한 답을 줄 수 없는지도 모른다. 역사야 어떠하였던지간에 지나간 과거를 살아보지 못한 새세대 앞에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꿈이 새시대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화해와 협력을 다지며 통일을 일구어내어 새세기, 세계 속에 빛나는 '아침이 고요한 나라' 한국을 세우는 과제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비전이다.

보라! 경이로운 금강산 오색향연의 가을 맞이를 소리 높여 기뻐하는 우리들 앞에 어느덧 동해의 여명을 가르는 새하늘과 새아침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지 않는가. **統**